

파니움 - 번호 십일 십일

십일, 십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증언

Jeff Pippenger

2025-08-09

파니움 연구에서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긴 과정이 있었고, "11, 11"이라는 제목은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서로 조율하셔서 각 책의 1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 역사의 내부선과 외부선을 제시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11-11'의 두 선으로 대표되는 내적·외적 예언의 역사들이 현재 진리가 되는 때까지 봉인되어 있던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풀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0, 11.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의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봉인이 풀릴 때의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1-3.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2023년 7월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가 전해진 이래 그분이 계속해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을 푸실 때, 그 봉인 해제에는 그분이 '팔모니', 즉 '기묘한 계산자' 또는 '비밀을 헤아리시는 분'이심이 드러나는 계시가 포함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다. 그의 손에는 키가 있어서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마태복음 3:11, 12.

"이 정화 과정이 정확히 언제 시작될지는 나는 말할 수 없지만, 오래 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손에 키를 드신 그분은 그분의 성전을 도덕적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증언, 372, 373.

인침의 때를 예언적 시험 과정으로 규정하는 예언의 증거들은 차고도 넘친다. 그 시험 과정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 올바른 또는 잘못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기초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진리는 또한 영감받은 기록 속에 풍성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네 소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하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 명하여 정해 둔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이는 하나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왕이 그들에게 묻는 모든 지혜와 총명에 관한 일에서, 그는 그들이 온 그의 나라에 있던 모든 박수와 점성가들보다 열 배나 더 뛰어나다고 여겼다. 다니엘서 1:17-20.

예언 해석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진리가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해 확립된다는 것이며, 이 원칙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들은 스스로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다. 인치는 때의 시험 과정의 한 요소는 다니엘과 요한이 11장 11절에서 제시한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봉함된 책이지만, 동시에 열린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가르침은 신비적이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 그 안에서는 다니엘서에서와 같은 예언의 흐름이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언들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것들에게 중요성을 두어야 함을 보여 주신다. 주께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신다. Manuscript Releases, 제9권, 8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두 증인을 상징하며,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상징된다. 그 장 11절에서 엘리야와 모세로 상징된 두 증인은 끓는 기름 속의 요한과 사자 굴 속의 다니엘로 예표된 바와 같이 부활한다. 14만 4천 명은 다니엘과 요한으로, 또한 엘리야와 모세로도 상징된다. 14만 4천 명을 형성하는 시험 과정에서 성공하려면, 학생은 진리가 두 증인 위에 세워진다는 것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두 증인을 상징한다는 것과, 14만 4천 명이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으로 예표되어 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진리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모두에서 '11, 11'로 상징되는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와 관련된 예언적 진리의 간략한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팔모니로서 두 본문이 서로 일치하도록 인도하셨고, 또한 11에 11을 더하면 22가 되며, 이는 다시 220의 십일조, 곧 십분의 일로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함을 보여주셨다. 팔모니는 둘 이상의 증인을 통해 '220'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냄을 입증했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육신을 취하셨을 때의 성육신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복음의 요구를 기꺼이 충족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우리의 인성과 결합하시기를 기꺼이 원하신다는 본을 제시하셨다.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은 두 증인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1-5.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두 증인을 대표하며, 그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이기도 하다.

두 증인에 관하여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선언한다: '이들은 두 감람나무요, 온 땅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촛대니라.' '주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말하였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요한계시록 11:4; 시편 119:105.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대표한다. 대쟁투, 267쪽.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며, 구약과 신약이다. 이는 문단에서 "주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마지막 지식의 증가"로서, 십사만 사천 중 하나가 될 후보자들을 시험한다. "마지막 지식의 증가"는 또한 열 처녀의 비유에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다.

'그때 내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등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니이까?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하여 스스로 금 기름을 흘려 내는 이 두 감람가지들은 무엇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이는 온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라.' 스가랴 4:11-14. 이것들은 금 대접들에 자신들의 기름을 쏟아 붓는데, 그 금 대접들은 경고와 간청으로 주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사자들의 마음을 상징한다. 말씀 자체가 그렇게 상징된 바와 같이, 온 땅의 주 곁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 나오는 금 기름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령과 불로 하는 침례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열어 자각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영혼의 필요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채워질 수 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키고 열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 주석, 제4권, 1180.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자 그리스도이며, 성경과 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상징하고 십사만 사천도 두 증인을 상징한다. 그 두 증인은 다시금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을 상징한다. 또한 그들은 내적과 외적 예언의 역사를 상징한다. 증인으로서 그들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때 죄를 범하지 있음을 증거했다. 또한 그들은 신성과 인성 사이의 연결을 상징한다. 사다리, 통로, 관, 천사 등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잇는 다른 어떤 상징이든지, 인간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언제나 생명 또는 죽음이다.

온 땅의 주 곁에서 있는 기름부음 받은 자들은, 한때 사탄에게 주어졌던 덮는 그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보좌를 둘러싼 거룩한 존재들을 통하여, 주께서는 땅의 거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유지하신다. 그 황금 기름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등불에 공급하셔서 그 빛이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상징한다. 만일 하나님의 영의 기별을 통해 이 거룩한 기름이 하늘로부터 부여되지 않는다면, 악의 세력은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 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금기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심이 올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자기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는 그 기름을 얻을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생애는 파탄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여될 것이다. 금관들을 통해 금기름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의의 해의 밝은 광선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빛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7월 20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이 가리키는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의 동안 성령의 부어주시미 일어난다. 다니엘서 11장 11절과 12절에는 식별되어야 할 예언적 인물들이 '적어도' 네 명 나타난다. 또한 13절부터 15절에도 네 인물이, 16절에도 네 인물이 식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으므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써 11절부터 16절의 상징적 인물들이 누구인지 가려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장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포괄하는 하나의 예언적 흐름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또한 1989년부터 봉인이 풀려 온 제40절의 역사에 나타난 인물들을 특정하는 것도 적절해 보인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은 끝의 때까지 닫히고 봉함되었다.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어지며 연단을 받겠으나, 악한 자들은 악하게 행하리니, 악한 자들 가운데는 깨닫는 자가 없을 것이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9, 10.

40절은 1798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교황을 사로잡은 사건과 함께 시작되는 끝의 때에서 시작된다. 나폴레옹의 정당화는 1797년의 툴렌티노 조약이 파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나폴레옹과 교황의 전쟁은 이미 다니엘 11장 6절과 7절이 성취된 역사 속에서 예표되어 있었다. 6절과 7절의 성취로 나타난 깨어진 혼인 동맹과 남방 왕에 의한 북방 왕의 패배는 1798년의 역사에서 반복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은 6절과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가리킬 뿐 아니라, 이집트의 제2대 왕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와 시리아의 제3대 왕 안티오쿠스 테오스 사이의 전쟁이 시작될 때 그 구절들이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남방 왕을, 안티오쿠스는 북방 왕을 대표했다.

구절들의 예언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안티오쿠스의 역사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사실—그것이 다시금 예표가 되었고—그리고 1798년의 나폴레옹과 교황의 역사와 함께 묶일 때, 11절과 12절에서 푸틴과 젤렌스키의 역사를 예표하는 세 가지 선을 제공한다. 따라서 1798년의 끝의 때가 나폴레옹과 교황의 역사를 대표한다고 이해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 이해는 불완전하다. 우리는 6절과 7절이 나폴레옹과 교황에 관해 무엇을 예언하는지, 또한 프톨레마이오스와 안티오쿠스의 역사가 그 동일한 기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이해해야 한다. 그 진리의 선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이전의 역사적

성취들이 40절의 시작 역사를 가리키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나폴레옹과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예표되어 왔고 6절과 7절에서 예언되어 온 푸틴이 11절과 12절을 성취할 때 40절의 끝도 또한 가리키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요한이 '용'과 '짐승'으로, 다니엘이 '상번제'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으로 각각 지칭하는 것들의 예언적 관계에 관해 중요한 관찰은, 이 둘이 예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요한은 이를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고, 또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였다: "누가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그와 싸울 수 있으랴?" 요한계시록 13:4.

용을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이교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의 '작은 뿔'을 사용하여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둘 다를 나타내지만, 그는 이교 로마의 작은 뿔을 남성의 의미로, 교황 로마의 작은 뿔을 여성의 의미로 지칭함으로써 둘을 분명히 구별한다. 7장에서 다니엘은 이교 로마가 그 이전의 왕국들과 '다르다'고 밝히고, 또한 교황 로마도 '다르다'고 밝힌다. 로마는 이교이든 교황이든 모두 '다르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교 로마를 나타내는 로마의 남성적 상징은 아합과 헤롯에 의해 뒷받침된다. 둘 다 교황권의 상징과 결혼했다. 여성은 교권을, 남성은 정치권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고 말할 때, 이는 예언적 의미에서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매우 비슷하다는 현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이다.

1798년 프랑스의 교황권과의 관계는 열 왕들이 로마를 불사르고 그 살을 먹을 때 미국의 교황권과의 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네가 그 짐승 위에서 본 열 뿔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17:16.

프랑스가 538년에 교황권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당시 프랑스의 교황권과의 관계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 미국이 교황권의 치명상을 치유하는 일을 예표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에게는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하며, 땅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나온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은 그 이적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에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14.

1798년의 "끝의 때"는 40절의 성취로서, 영적 남방 왕에 의해 영적 북방 왕이 제거되는 것을 지목한다. 그 예언적 역사는 교황 통치 1260년의 마지막 역사이며, 그러므로 그 예언적 역사의 시작에 나타난 예언적 특징들이 그 끝에서도 나타난다. 538년에 성경 예언의 넷째 왕국이 다섯째 왕국에 자리를 내주었고, 1798년에 다섯째 왕국이 여섯째 왕국에 자리를 내주었다.

538은 또한 레위기 26장의 '일곱 번'의 저주, 곧 이스라엘 북왕국을 향한 저주의 중간 이정표이기도 하다. 그 저주는 아시리아가 에브라임을 포로로 끌고 갔던 기원전 723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1798년은 538년의 예언적 속성뿐 아니라 기원전 723년의 예언적 속성도 지닌다. 기원전 723년에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 전복되고 있었고, 1,260년 뒤인 538년에는 이교 로마가 교황 로마에 의해 전복되었으며, '일곱 번'이 종결되는 1798년에 그 교황 로마는 프랑스에 의해 다시 전복되었다.

1798년 프랑스에서 남방의 왕이 교황권을 왕좌에서 끌어내렸다. 538년 프랑스에서는 이교 로마가 열 왕국으로 분열되는 과정의 대표적 상징이 교황권을 왕좌에 앉혔다.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 미국은 538년 프랑스의 역할을 반복하고, 열 왕들이 교황권을 불로 사르고 그 살을 먹을 때 미국은 1798년 프랑스의 역할을 반복한다.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일곱 때'의 심판은 북쪽에서 나온 왕국들에 의해 초래되었다.

이스라엘은 흠어진 양이다; 사자들이 그를 몰아냈다. 먼저 앗수르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레살이 그의 뼈를 부수었다. 예레미야 50:17.

아시리아는 북쪽에서 나와 기원전 723년에 열 지파를 정복했고, 바빌론은 기원전 677년에 유다를 포로로 삼았다. 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 북쪽 왕국이었지만, 두 왕국 모두 북쪽에서 온 적들에게 정복되었으므로, 그들을 포로로 삼은 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가 남쪽 왕국이 된 셈이다. 기원전 723년은 북방의 왕이 남쪽의 열 갈래로 분할된 왕국을 정복한 것을 나타낸다. 538은 이교주의에서 교황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또한 북쪽 왕국이 열 갈래로 분할된 왕국을 정복한 것을 의미한다. 1798은 열 갈래로 분할된 왕국을 대표하는 남방의 왕에게 북방의 왕이 패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고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으며, 지진으로 죽은 사람은 칠천 명이었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요한계시록 11:13.

538년과 연관된 과도기, 곧 로마가 이교에서 교황권으로 바뀌던 때는 다니엘서 8장에서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의 변화이기도 하며, 상징적으로는 국가 권력에서 교회 권력에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일곱 때'의 예언은 '진리'의 표식을 지니는데, 첫 글자(기원전 723년)가 히브리 알파벳의 스물두 번째이자 마지막 글자(1798년)를 보여 주며, 열세 번째이자 가운데 글자는 반역(538년)을 나타낸다. 다니엘은 '황폐케 하는 죄악'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된 그 '범죄'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며, 그 관계에서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밝힌다. 그 '범죄'는 538년을 가리키는데, 이는 이스라엘 북방 열지파를 향한 '일곱 때' 기간의 세 가지 주요 이정표 가운데 중간이며, 비유적으로는 열세 번째 글자에 해당한다.

다니엘 11장 40절에 제시된 '끝의 때'인 1798년에 무신론적 프랑스, 곧 남방 왕이 북방 왕인 교황권에 치명상을 입혔다. 1989년에는 교황권이 그때 소련이 되어 있던 무신론적 남방 왕에게 보복했다. 그 보복에는 미국과 바티칸 사이의 비밀 동맹이 포함되었다. 1989년 소련의 붕괴로 40절에 기록된 예언적 메시지가 마무리되고, 다음 절인 41절은 미국의 일요일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1989년 소련의 붕괴부터 다음 절의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40절의 숨은 역사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사십 절은 먼저 1798년에 남방 왕과 북방 왕을 지목하고, 이어 1989년에는 남방 왕과 북방 왕뿐 아니라 병거와 함선과 기병으로 대표되는 제3의 세력도 지목한다.

마지막 때에 남쪽의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며, 북쪽의 왕은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바람처럼 그를 치러 올 것이다. 그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 홍수처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다니엘 11:40.

1798년 '끝의 때'에 나폴레옹의 실제 장군이 바티칸에 들어가 문자 그대로 교황을 붙잡아 투옥했다. 1989년에 1798년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졌다. 1798년과 1989년 사이의 역사 속에서는 주목해야 할 예언적 전환들이 일어났다. 1798년 시기의 남방 왕이었던 무신론적 프랑스는 첫 번째 영적 남방 왕이었고, 푸틴의 러시아가 그 마지막이 될 운명이다. 프랑스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지목되며, 화잇 자매는 그것을 무신론적 프랑스로 직접 규정한다. 11장에서 프랑스를 지목하는 두 상징 가운데 하나는 이집트이며, 화잇 자매는 이를 무신론의 상징으로 규정한다. 그 장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시기에 역사 속으로 등장한 무신론이었다.

무신론은 1798년경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역사에 등장하고, 1989년에 이르러 무신론의 영적 왕은 소련이 되었다. 1989년 소련의 붕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로널드 레이건 사이의 비밀 동맹의 성취로서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예표되어 있었고, 10절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이사야서 7장부터 11장에 제시된,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을 향한 2,520년의 두 가지 저주에 관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1989년은 말세의 예언적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기준점이 된다. 바로 그때 40절의 봉인이 풀렸다. 이제 40절이 1798년에 시작되어 41절에 언급된 주일법에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요일법이 제정될 때 미국은 용처럼 말하며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통치를 끝낼 것이다. 미국은 다섯째 왕국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1798년에 통치 기간을 시작했다. 1798년에 미국은 외국인 및 선동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시작과 동시에 여섯째 왕국의 종말을 예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40절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미국의 역사이다.

1798년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이고, 일요일 법령은 히브리 알파벳의 스물두 번째이자 마지막 글자이며, 1989년은 숫자 열셋과 히브리 알파벳 열세 번째 글자로 상징되는 반역을 나타내는 가운데의 이정표이다. 1989년은 성경 예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레이건의 비밀 동맹이라는 반역을 나타낸다. 1989년은 헌법에 대한 반역이 심화되는 시기에 통치하는 마지막 여덟 명의 대통령 가운데 첫째의 등장을 알린다. 1989년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 사이에서 두 부류의 예배자를 만들어 내도록 고안된 시험 과정을 시작했다. 충성된 이들은 소수이고, 불충한 이들은 다수이다. 1989년은 사십절의 가운데 이정표를 나타내며, 또한 열세 번째 글자로 상징되는 반역을 나타낸다. 사십절은 "진리"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

40절에는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절의 끝부분의 역사에서는 그들이 다른 인물들로 나타난다. 또한 미국도 등장하는데, 요한에 따르면 미국은 용과 짐승과 함께 일하여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다. 40절의 남방의 왕은 용이고,

북방의 왕은 짐승이며, 병거와 배와 기병은 거짓 선지자다. 1989년에 40절이 성취된 것은 11절부터 15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예언적 특징이 된다. 1989년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역사에 대해 논리적으로 올바를 수 없다.

1989년부터 주일법에 이르기까지 교황권을 위한 세 차례의 대리전쟁이 10절부터 15절에 묘사되어 있다. 이 구절들은 하나의 연속된 역사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10절부터 15절의 역사적 성취에서 나타난 세 전투 모두에 동일한 '안티오코스 마그누스'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세 번의 전투는 하나의 예언적 흐름이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대왕이 그 세 전투 각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10절과 이사야 8장 8절은 1989년에 40절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는 두 증인을 제시한다. 40절은 10절과 이사야 8:8에서의 기준점이다. "전차, 배, 기병"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의 두 뿔을 대표한다. 마지막 때 미국이 "용처럼 말할" 때 두 뿔은 더 이상 공화주의와 개신교가 아니다. 그때 소위 개신교도들은 가톨릭과 연합할 것이며, 입헌 공화국은 독재 체제로 바뀔 것이다. 그 시기에 땅의 짐승의 두 뿔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미국은 세계가 매매를 하기 위해, 또한 죽음의 위협 아래,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그 두 뿔은 경제력을 나타내는 다니엘의 "배"와 군사력을 나타내는 그의 "기병과 전차"이다.

1989년은 11절부터 15절에서 라피아와 파니움 전투의 역사적 성취를 적용할 때, 1989년과 소련의 붕괴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던 동일한 예언 해석 방법론을 사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안티오코스 마그누스가 10절부터 15절에 묘사된 세 차례의 전투 모두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안티오코스는 전차와 함선과 기마병의 권세를 대표하는데, 이는 1989년에 로널드 레이건으로 나타났고 여덟 명의 대통령 가운데 첫째였으며, 그중 마지막은 또한 여섯째였고 지금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이다.

이사야 23장에 따르면, 교황권(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음녀)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인 미국의 통치 기간 동안 숨겨질 것이다. 1989년에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로 예표되었던 미국은, 1798년에 교황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던 무신론의 짐승과 벌인 전쟁에서 교황권의 대리 세력이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세 전투는, 두로의 숨겨진 음녀로서 자신의 권세 회복과 무신론의 왕, 곧 남방 왕의 패배를 향해 나아가며 대리 세력들을 동원하는 북방 왕과 무신론의 왕, 곧 남방 왕 사이의 전쟁을 나타낸다. 10절부터 15절의 세 전투에 대한 역사적 성취는 첫 번째와 마지막 전투에서는 안티오코스 마그누스가 승리했지만, 가운데 전투에서는 그가 패배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1989년의 로널드 레이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소련 붕괴와 관련된 예언적 특성들은 세 전투 중 마지막 전투에서 이에 상응하는 양상을 보일 것인데, 이는 이 구절들이 유예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40절이 1798년에, 그리고 다시 1989년에 봉인이 풀렸던 것처럼, 그 절은 마지막에, 2023년 7월부터 봉인이 풀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며, 그 안에는 예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그러므로 항상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신다는 가장 으뜸되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재림주의에 대한 은혜의 시간은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며,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봉인 해제된다. 일요일

법령의 닫힌 문에서 끝나는 기별은, 밀러주의 역사에서 1844년 10월 22일의 닫힌 문으로 이끌었던 한밤중 소리의 기별이다.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미국의 시작이기도 한 40절의 시작에서 1798년에 이루어진 봉인 해제는, 40절 중간에서 1989년에 이루어진 봉인 해제와 미국의 점진적 종결의 시작을 예표했다. 1989년을 예표한 1798년의 봉인 해제는 2023년에 한밤중 소리의 기별이 봉인 해제되는 것에 대한 두 증인을 나타낸다. 1798, 1989, 2023이라는 세 이정표를 가진 이 선은, 열 처녀를 정결하게 하는 내부의 사역과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에 대한 외적 역사선을 드러낸다.

11절에 제시된 전투는 안티오쿠스가 프톨레미에게 패배한 라피아 전투에서 성취되었으며, 교황의 대리 세력의 패배를 의미한다. 현재의 전투에서 그 대리 세력은 EU와 NATO를 이루는 서유럽 글로벌리스트 국가들과 동맹하고 유엔의 정치·경제 글로벌리스트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치 세력이다.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세 전투 모두에 참여하여 남방 왕에 맞선 교황의 대리 세력을 대표한다면, 어떻게 1989년에는 미국, 라피아 전투로 대표되는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인들, 그리고 파니움 전투에서는 다시 미국이 될 수 있는가? 10절은 11절부터 15절의 열쇠인데, 1989년에 그것이 성취된 사실이 세 차례의 대리 전쟁 중 첫 번째의 예언적 특성들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안티오쿠스를 교황의 대리 세력으로 식별하면서 세 전투 각각에 미국을 적용하지 않는 예언적 정당성은 무엇인가?

라피아 전투로 상징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치 세력을 자신들의 대리 세력으로 활용했는데, 이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위해 언제나 오로지 대리 세력만을 사용하는 권력인 교황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10절부터 15절에 제기된 대리 권력의 문제에 답하는 것은 상징으로서의 안티오코스의 특성에 대한 예언적 연구를 수반한다. 디오도코이 전쟁은 기원전 323년부터 281년까지,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자 후계자들인 디오도코이(그리스어로 '후계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분쟁으로, 그가 기원전 323년에 죽은 뒤 그의 광대한 제국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싸움이었다. 최초의 안티오코스는 안티오코스 1세 소테르로, 셀레우코스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의 디오도코이(후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의 아들이었다.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은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 그를 대신해 자리에 서는 자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안티오쿠스는 로마를 상징하며, 교황권 로마는 안티오쿠스와 유사한 상징성을 지닌 적그리스도이다. 이름으로서의 안티오쿠스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창건자의 아들을 가리켰고, 그런 의미에서 안티오쿠스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의 대리인으로 서 있었다. 시스터 화이트는 사탄과 교황 모두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교황이 지상에서 사탄의 대표라고 말한다. 이 이름은 안티오쿠스 1세 소테르와, 셀레우코스 1세의 아버지 또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안티오크 도시와의 연관성 때문에 셀레우코스 제국에서 두드러진 왕조의 이름이 되었다. 교황은 사탄의 대리자이며, 상징적으로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은 바빌론에 수도를 둔 북방 왕국의 창건자인 그의 아버지를 위한 대리인을 나타낸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한 뒤, 그의 제국은 디아도코이(후계자들) 사이에서 분열되었다. 바빌론 분할(기원전 323년)에서 셀레우코스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섭정인 페르디카스 휘하에서 친위 기병대 지휘관(명망 높은 군직)으로 처음 임명되었다. 페르디카스의 사망과 디아도코이 간의 추가 협상 이후, 기원전 321년 트리파라디소스 분할에서 셀레우코스는 바빌로니아의 사트라프(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기원전 316년, 또 다른 디아도코스인 안티고노스 1세 모노프탈모스의 세력이 커지면서 셀레우코스는 바빌론에서 도망쳐야 했다. 셀레우코스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에게 피신했다. 기원전 312년, 셀레우코스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제공한 소규모 병력을 이끌고 바빌론으로 돌아왔다. 그는 안티고노스의 군대를 격파하고 바빌론을 탈환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립했다. 이 사건은 흔히 셀레우코스 제국의 성립으로 여겨지며, 역사적 연대에서는 기원전 312년을 셀레우코스 연대의 시작으로 잡는다.

Seluecus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빛', '광채', 또는 '불꽃'을 뜻하는 어근 selas(σέλας)에서 비롯되었다. 이 이름은 찬란함이나 밝음을 암시하며, 셀레우코스 제국의 창건자이자 하늘에서 빛을 들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인물인 Seleucus I Nicator와 같은 저명한 인물에게 걸맞다.

세속적 이익과 영예를 확보하기 위해 교회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호의와 지원을 구하도록 이끌렸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거절한 교회는 사탄의 대표자인 로마의 주교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유도되었다.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는 교황권의 대리자를 상징하며, 교황은 사탄의 대리자를 상징한다. 안티오코스의 상징성은 서로 다른 대리 권력을 허용하는데, 이는 교황이 여럿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레이건은 1989년의 대리자였고,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미국의 대리 세력이 되었으며, 트럼프는 파니움 전투에서의 대리자이다. 레이건이 처음이고, 트럼프가 마지막이며, 젤렌스키는 그 중간의 반란이다.